

2022. 7.

---

# 2022년 3/4분기

## 김해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

---

# 1 조사개요

## □ 조사목적

- 김해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(Business Survey Index; BSI)는 김해지역 소재 제조기업의 체감 경기전망을 파악하고 기업의 경영활동 환경을 파악하여 기업의 경기동향과 정부의 경제운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.

## □ 조사방법 및 기간

- 조사방법 : 설문조사
- 조사기간 : 2022. 6. 13 ~ 6. 24(휴일제외 10일간)
- 분석대상 : 102개 응답기업

(단위 : 개, %)

|      | 기업규모   |        | 수출비중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| 50인 이상 | 50인 미만 | 수출기업<br>(수출 50% 이상) | 내수기업<br>(수출 50% 미만) |
| 응답기업 | 25     | 77     | 40                  | 62                  |
| 응답비중 | 24.5   | 75.5   | 39.2                | 60.8                |

## □ 조사내용

- 기업체감경기, 매출액, 영업이익 등 실적 및 전망
- 올해 초 계획한 목표치 대비 금년 상반기 실적(영업이익) 전망
-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 출범(7.1)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전망
- 차기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
- 차기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경계해야 할 사항

## □ 분석방법

- 기업경기지수(Business Survey Index; BSI)는 전분기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응답 기업 수를 바탕으로 아래 공식으로 지수화한 것임

$$\text{BSI} = \frac{\text{“호전예상” 기업수} - \text{“악화예상” 기업수}}{\text{전체 응답기업수}} \times 100 + 100$$

- BSI 100 : 체감경기 ‘호전’ 과 ‘악화’ 로 응답한 기업 수 같음
- BSI 100 이상 : 체감경기 ‘호전’ 으로 응답한 기업이 많음
- BSI 100 미만 : 체감경기 ‘악화’ 로 응답한 기업이 많음

## 2 요약

### □ 현황분석

#### ○ 2022년 3분기 전망 ‘71.6’ , 2분기 실적 ‘65.7’

- 김해지역 3분기 제조업 경기전망 BSI는 71.6로 전년도 동기 전망(94.6) 대비 23.0p 감소하였고 직전 2분기 전망(77.9) 대비 6.3p 감소함.
- 올해 초 계획한 목표치 대비 금년 상반기 실적(영업이익) 전망을 묻는 질문에 ‘목표치 달성·근접(33.3%)’ , ‘목표치 초과(3.9%)’ 으로 답한 경우, 이에 대한 이유로는 ‘내수 시장 회복(40.9%)’ , ‘글로벌 수요 증가 등 대외여건 개선(38.7%)’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, ‘목표치 미달(62.8%)’ 으로 답한 경우, 하반기 실적(영업이익)의 가장 큰 대내외 리스크를 묻는 질문에 대해 ‘환율·물가 변동성(29.6%)’ , ‘내수시장 침체(20.1%)’ 등의 순으로 응답함.
-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 출범(7.1)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전망을 묻는 질문에 ‘기대하지 않음(8.8%)’ 또는 ‘별로 기대하지 않음(49.0%)’ 으로 답한 경우, 이에 대한 이유로 ‘원자재가 상승 지속(42.9%)’ , ‘기업현장 구인난 지속(18.5%)’ , ‘주요 수출시장 경기 부진(16.8%)’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, ‘다소 기대(38.3%)’ 또는 ‘기대(3.9%)’ 으로 답한 경우에는 ‘새정부의 규제개선 정책(46.3%)’ , ‘지방선거 이후 국정안정 기대(14.9%)’ , ‘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기대(14.9%)’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.
- 차기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‘입지/시설/환경 관련 규제 해소(28.7%)’ , ‘지역 특화 산업 육성(22.2%)’ , ‘외자/기업 투자 유치(20.3%)’ , ‘용지/도로/항만 등 인프라 확충(16.8%)’ , ‘지역대학 지원 등 인력양성(8.4%)’ , ‘기타(3.6%)’ 순으로 응답함.  
※ 기타 : 일하기 좋은 기업여건 제공(규제 등), 세제감면, 기업자금지원, 원자재 가격조정 등
- 차기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경계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‘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(40.9%)’ , ‘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(22.9%)’ , ‘선심성 예산 집행(20.0%)’ , ‘지역 경제주체의 여론수렴 미흡(13.8%)’ , ‘중앙정부/지방의회와의 갈등(2.4%)’ 순으로 응답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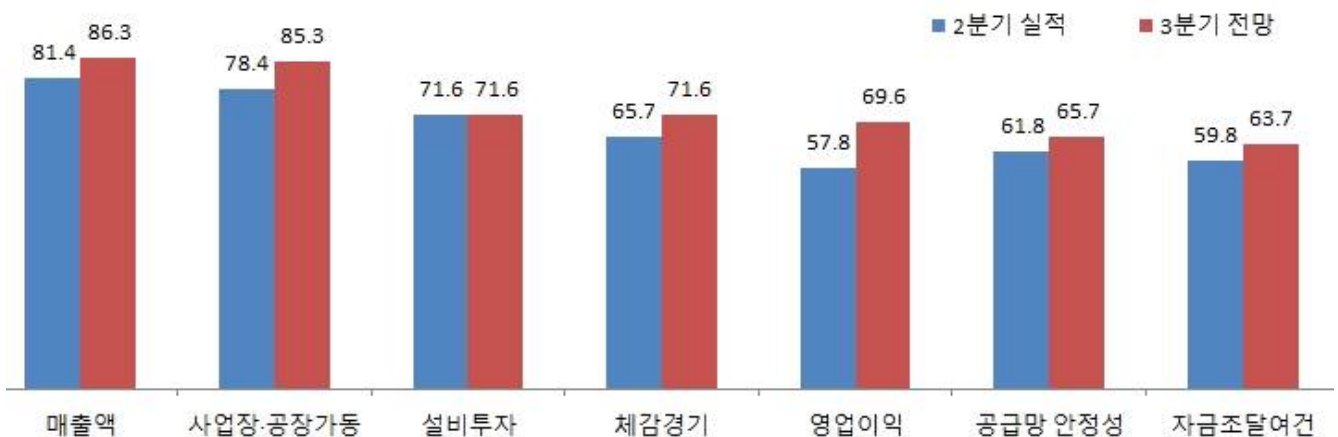
## 3

## 2022년 3/4분기 기업경기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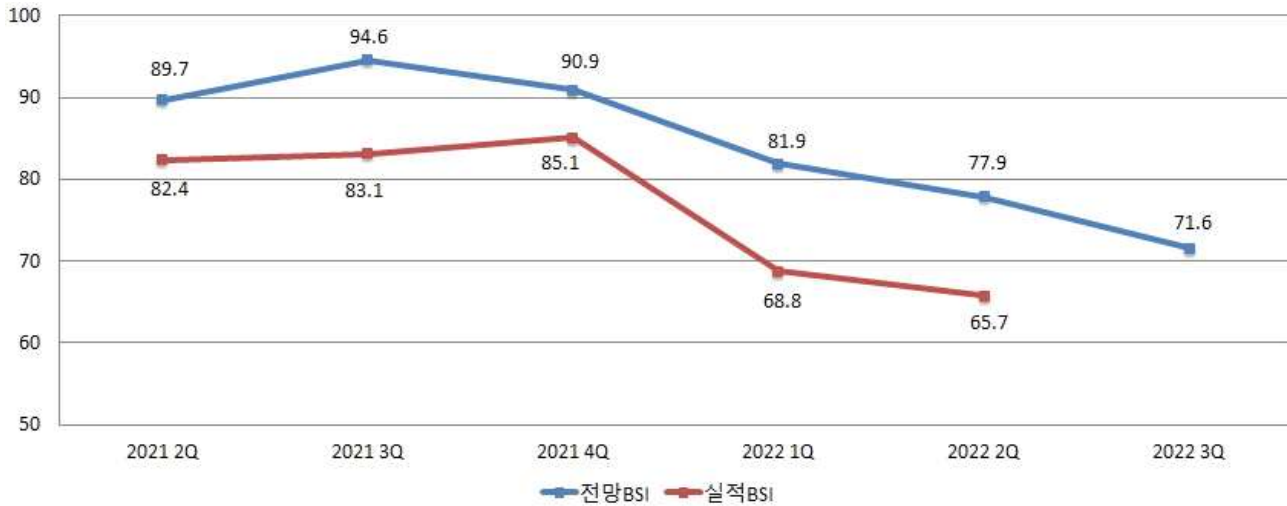
## □ 김해 제조업 경기전망 및 실적 BSI

- 2022. 6. 13 ~ 6. 24(휴일제외 10일간) 동안 김해지역 102개 기업에 대하여 3/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표를 취합·분석한 결과, 김해지역 3분기 제조업 경기전망 BSI는 기준치에 밀린 71.6으로 전년도 동기 전망(94.6) 대비 23.0p 하락, 직전 2분기 전망(77.9) 대비 6.3p 하락한 결과로 나타남.
- 2022년 1분기 BSI 대비 2분기 실적은 기준치를 넘지 못한 65.7로 조사되었음. 이는 지난 분기 조사되었던 2분기 전망(77.9) 보다 12.2p 낮은 수치임.
- 2022년 3분기 전망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‘매출액(86.3)’, ‘사업장·공장가동(85.3)’, ‘설비투자(71.6)’, ‘체감경기(71.6)’, ‘영업이익(69.6)’, ‘공급망 안정성(65.7)’, ‘자금조달여건(63.7)’ 으로 모두 기준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남.

## 〈 항목별 실적 및 전망 BSI 〉



### < 김해지역 제조업 실적 및 전망 체감경기(BSI) 추이 >



#### □ 기업규모별, 수출비중별 실적 및 전망

- 3분기 경기전망 BSI를 기업규모별로 분석한 결과, 상시근로자 수 ‘50인 미만 기업 (75.3)’ 과, ‘50인 이상 기업(60.0)’ 으로 나타났고, 1분기 BSI 대비 2분기 실적은 상시근로자 수 ‘50인 미만 기업(66.2)’ 과 ‘50인 이상 기업(64.0)’ 으로 조사됨.
- 수출비중에 따른 3분기 경기전망 BSI는 ‘내수기업(79.0)’ 과 ‘수출기업(60.0)’ 으로 나타났고, 1분기 BSI 대비 2분기 실적은 ‘내수기업(72.6)’ 과 ‘수출기업(55.0)’ 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.

### < 기업규모별 실적 및 전망 BSI >

| 항목         | 분류 | 기업규모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|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           |    | 50인 미만 |        | 50인 이상 |        |
|            |    | 2분기 실적 | 3분기 전망 | 2분기 실적 | 3분기 전망 |
| 체감경기       |    | 66.2   | 75.3   | 64.0   | 60.0   |
| 매출액        |    | 81.8   | 88.3   | 80.0   | 80.0   |
| 영업이익       |    | 53.2   | 70.1   | 72.0   | 68.0   |
| 설비투자       |    | 66.2   | 67.5   | 88.0   | 84.0   |
| 공급망안정성     |    | 57.1   | 67.5   | 76.0   | 60.0   |
| 자금조달여건     |    | 53.2   | 58.4   | 80.0   | 80.0   |
| 사업장 · 공장가동 |    | 77.9   | 84.4   | 80.0   | 88.0   |

＜ 수출비중별 실적 및 전망 BSI ＞

| 항목       | 분류 | 수출비중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
|          |    | 내수기업(50% 미만) |        | 수출기업(50% 이상) |        |
|          |    | 2분기 실적       | 3분기 전망 | 2분기 실적       | 3분기 전망 |
| 체감경기     |    | 72.6         | 79.0   | 55.0         | 60.0   |
| 매출액      |    | 90.3         | 91.9   | 67.5         | 77.5   |
| 영업이익     |    | 66.1         | 79.0   | 45.0         | 55.0   |
| 설비투자     |    | 80.6         | 77.4   | 57.5         | 62.5   |
| 공급망안정성   |    | 77.4         | 74.2   | 37.5         | 52.5   |
| 자금조달여건   |    | 59.7         | 69.4   | 60.0         | 55.0   |
| 사업장·공장가동 |    | 87.1         | 93.5   | 65.0         | 72.5   |

□ 올해 초 계획한 목표치 대비 금년 상반기 실적(영업이익) 전망

○ 조사대상 기업들의 올해 초 계획한 목표치 대비 금년 상반기 실적(영업이익) 전망을 묻는 질문에

- ① 목표치 초과(3.9%)
- ② 목표치 달성·근접(33.3%)
- ③ 목표치 미달(62.8%)으로 응답함.

○ ‘① 목표치 초과(3.9%)’ 또는 ‘② 목표치 달성·근접(33.3%)’ 으로 답한 경우,

- 이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

- ① 내수시장 회복(40.9%)
- ② 글로벌 수요 증가 등 대외여건 개선(38.7%)
- ③ 기타(9.1%)
- ④ 환율·원자재 수급 등 채산성 개선(4.5%)
- ⑤ 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(4.5%)
- ⑥ 자금 조달 여건 개선(2.3%) 순으로 응답하였음.

※ 기타 : 기 투자부문 효과, 고객사 생산계획에 따른 상반기 생산량 집중 등

○ ‘③ 목표치 미달(62.8%)’ 으로 답한 경우,

- 하반기 실적(영업이익)의 가장 큰 대내외 리스크를 묻는 질문에 대해

- ① 환율·물가 변동성(29.6%)
- ② 내수시장 침체(20.1%)
- ③ 중국 봉쇄 등 공급망 병목 지속(15.7%)
- ④ 자금조달 여건 악화(13.2%)
- ⑤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불안(11.9%)
- ⑥ 기업부담법안 등 정책 리스크(5.7%)
- ⑦ 기타(3.8%) 순으로 응답하였음.

※ 기타 :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채산성 악화, 최저시급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 등

< 올해 초 계획한 목표치 대비 금년 상반기 실적(영업이익) 전망 >

(단위 : %)



< 목표치 초과 또는 달성·근접으로 답한 이유 >

(단위 : %)

| 연번  | 이유                  | 응답비율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1   | 내수시장 회복             | 40.9  |
| 2   | 글로벌 수요 증가 등 대외여건 개선 | 38.7  |
| 3   | 기타                  | 9.1   |
| 4   | 환율·원자재 수급 등 채산성 개선  | 4.5   |
| 5   | 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        | 4.5   |
| 6   | 자금 조달 여건 개선         | 2.3   |
| 총 계 |                     | 100.0 |

〈 목표치 미달로 답한 경우 하반기 실적(영업이익)의 가장 큰 대내외 리스크 〉

(단위 : %)



□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 출범(7.1)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전망

○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 출범(7.1)을 계기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

- ① 기대하지 않음(8.8%)
- ② 별로 기대하지 않음(49.0%)
- ③ 다소 기대(38.3%)
- ④ 기대(3.9%)으로 응답함.

○ ‘① 기대하지 않음(8.8%)’ 또는 ‘② 별로 기대하지 않음(49.0%)’ 으로 답한 경우,

- 이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

- ① 원자재가 상승 지속(42.9%)
- ② 기업현장 구인난 지속(18.5%)
- ③ 주요 수출시장 경기부진(16.8%)
- ④ 지역 주력산업 약화, 부채(12.6%)
- ⑤ 투자 가로막는 규제 여전(6.7%)
- ⑥ 기타(2.5%) 순으로 응답하였음.

※ 기타 : 화물연대 파업, 고유가, 정책의 현실성 부족 등

○ ‘③ 다소 기대(38.3%)’ 또는 ‘④ 기대(3.9%)’ 로 답한 경우,

- 이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

- ① 새정부의 규제개선 정책(46.3%)
- ②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기대(14.9%)
- ③ 지방선거 이후 국정안정 기대(14.9%)
- ④ 기업의 지역투자 확대(13.4%)
- ⑤ 기회발전특구 등 새정부 지역육성 정책(7.5%)
- ⑥ 기타(3.0%) 순으로 응답하였음.

※ 기타 : 최저시급 개선, 경제에 대한 예측가능성 개선 등

<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 출범(7.1)  
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전망 >

(단위 : %)



< 다소 기대 또는 기대로 답한 이유 >

(단위 : %)

| 연번  | 이유                      | 응답비율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1   | 새정부의 규제개선 정책            | 46.3  |
| 2   |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기대           | 14.9  |
| 3   | 지방선거 이후 국정<br>안정 기대     | 14.9  |
| 4   | 기업의 지역투자 확대             | 13.4  |
| 5   | 기회발전특구 등<br>새정부 지역육성 정책 | 7.5   |
| 6   | 기타                      | 3.0   |
| 총 계 |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.0 |

### < 기대하지 않음 또는 별로 기대하지 않음으로 답한 이유>

(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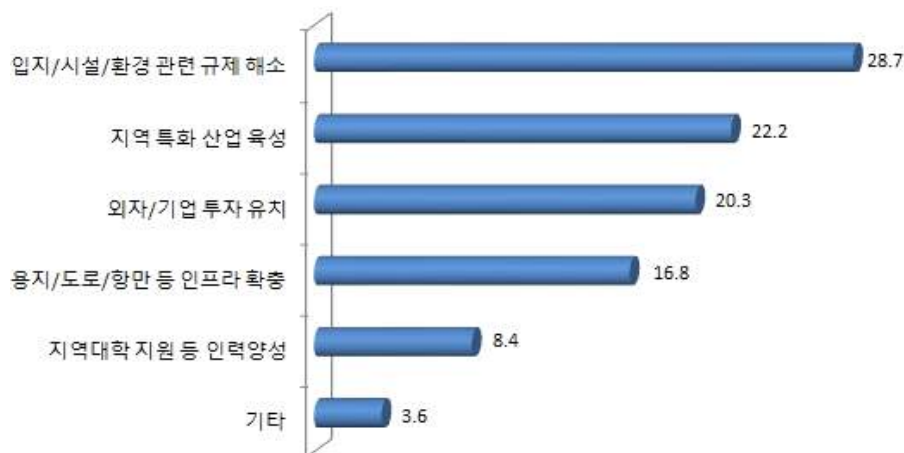
### □ 차기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

- 차기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‘입지/시설/환경 관련 규제 해소(28.7%)’, ‘지역 특화 산업 육성(22.2%)’, ‘외자/기업 투자 유치(20.3%)’, ‘용지/도로/항만 등 인프라 확충(16.8%)’, ‘지역대학 지원 등 인력양성(8.4%)’, ‘기타(3.6%)’ 순으로 응답함.

※ 기타 : 일하기 좋은 기업여건 제공(규제 등), 세제감면, 기업자금지원, 원자재 가격조정 등

### < 차기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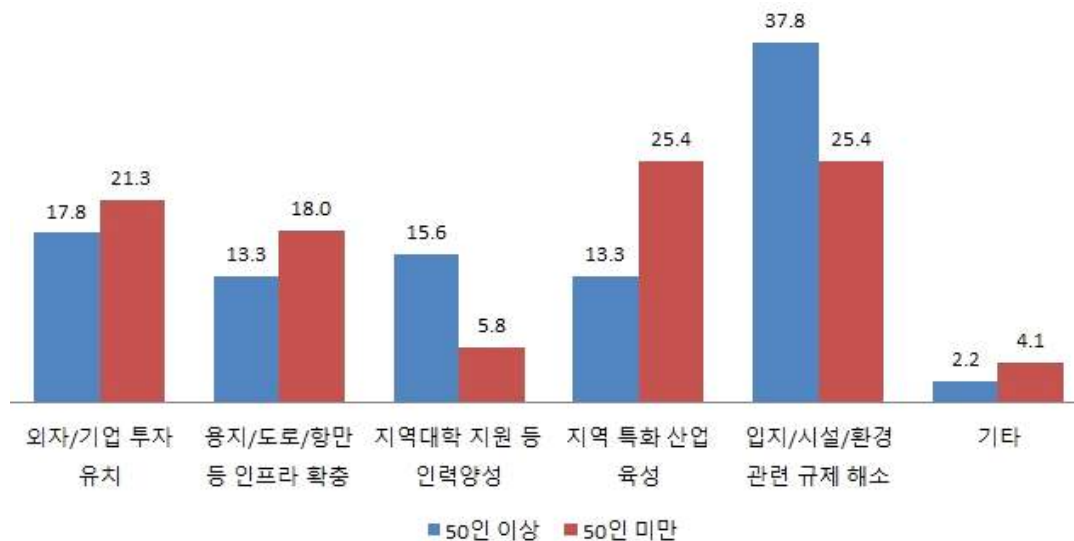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상시근로자 수 ‘50인 이상 기업’의 경우 ‘입지/시설/환경 관련 규제 해소(37.8%)’, ‘외자/기업 투자 유치(17.8%)’, ‘지역대학 지원 등 인력양성(15.6%)’, ‘용지/도로/항만 등 인프라 확충(13.3%)’, ‘지역 특화 산업 육성(13.3%)’, ‘기타(2.2%)’ 순으로 응답하였으며,
- ‘50인 미만 기업’의 경우 ‘입지/시설/환경 관련 규제 해소(25.4%)’, ‘지역 특화 산업 육성(25.4%)’, ‘외자/기업 투자 유치(21.3%)’, ‘용지/도로/항만 등 인프라 확충(18.0%)’, ‘지역대학 지원 등 인력양성(5.8%)’, ‘기타(4.1%)’ 순으로 응답함.
- ‘수출기업’의 경우 ‘입지/시설/환경 관련 규제 해소(28.1%)’, ‘외자/기업 투자 유치(21.9%)’, ‘지역 특화 산업 육성(21.9%)’, ‘용지/도로/항만 등 인프라 확충(15.6%)’, ‘지역대학 지원 등 인력양성(7.8%)’, ‘기타(4.7%)’ 순으로 응답하였고,
- ‘내수기업’은 ‘입지/시설/환경 관련 규제 해소(29.1%)’, ‘지역 특화 산업 육성(22.3%)’, ‘외자/기업 투자 유치(19.4%)’, ‘용지/도로/항만 등 인프라 확충(17.5%)’, ‘지역대학 지원 등 인력양성(8.8%)’, ‘기타(2.9%)’ 순으로 응답하였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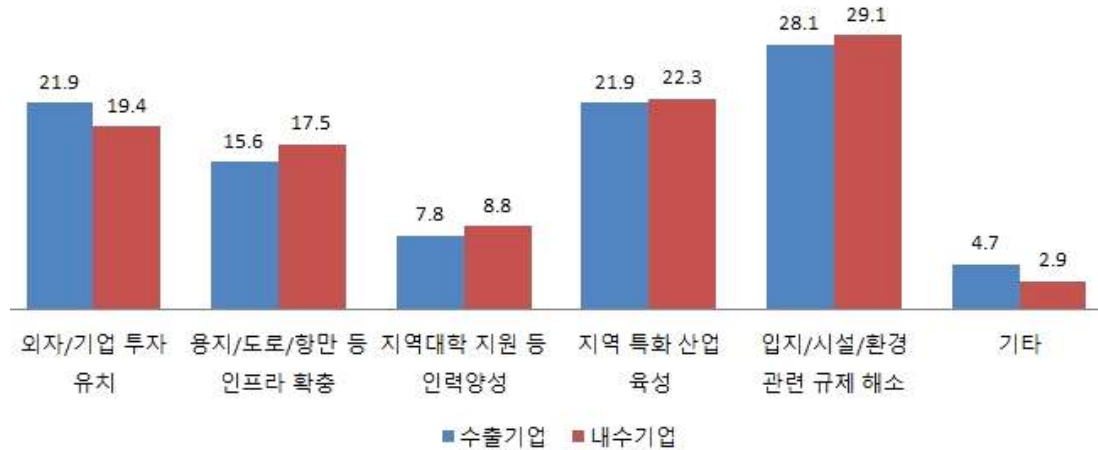
### 〈 기업규모별 분석결과 〉

(단위 : %)



### < 수출비중별 분석결과 >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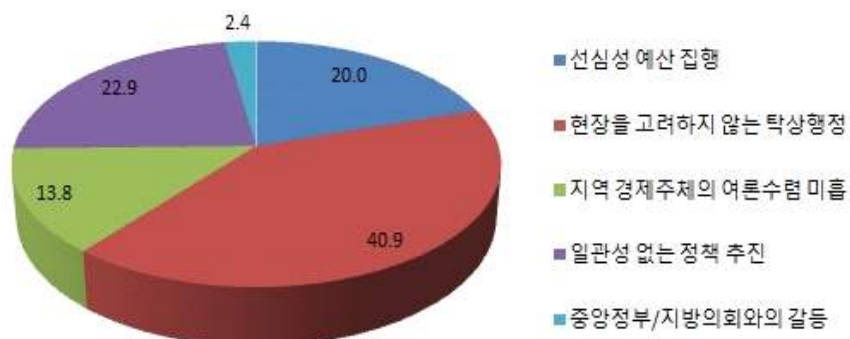


### □ 차기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경계해야 할 사항

- 차기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경계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‘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(40.9%)’, ‘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(22.9%)’, ‘선심성 예산 집행(20.0%)’, ‘지역 경제주체의 여론수렴 미흡(13.8%)’, ‘중앙정부/지방의회와의 갈등(2.4%)’ 순으로 응답함.

### < 차기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경계해야 할 사항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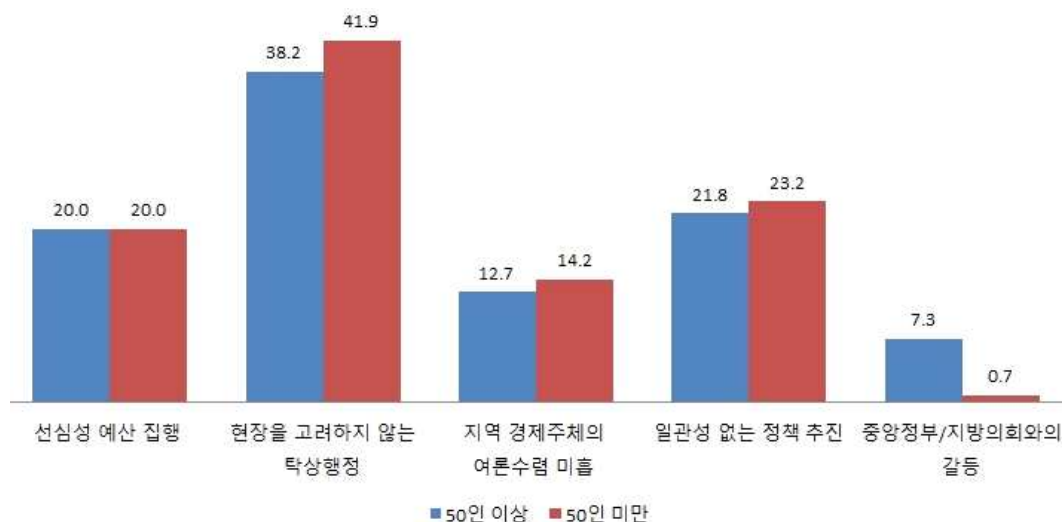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상시근로자 수 ‘50인 이상 기업’의 경우 ‘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(38.2%)’, ‘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(21.8%)’, ‘선심성 예산 집행(20.0%)’, ‘지역 경제주체의 여론수렴 미흡(12.7%)’, ‘중앙정부/지방의회와의 갈등(7.3%)’ 순으로 응답하였으며,
- ‘50인 미만 기업’의 경우 ‘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(41.9%)’, ‘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(23.2%)’, ‘선심성 예산 집행(20.0%)’, ‘지역 경제주체의 여론수렴 미흡(14.2%)’, ‘중앙정부/지방의회와의 갈등(0.7%)’ 순으로 응답함.
- ‘수출기업’의 경우 ‘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(43.0%)’, ‘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(21.5%)’, ‘선심성 예산 집행(20.3%)’, ‘지역 경제주체의 여론수렴 미흡(12.7%)’, ‘중앙정부/지방의회와의 갈등(2.5%)’ 순으로 응답하였고,
- ‘내수기업’은 ‘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(39.7%)’, ‘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(23.7%)’, ‘선심성 예산 집행(19.8%)’, ‘지역 경제주체의 여론수렴 미흡(14.5%)’, ‘중앙정부/지방의회와의 갈등(2.3%)’ 순으로 응답하였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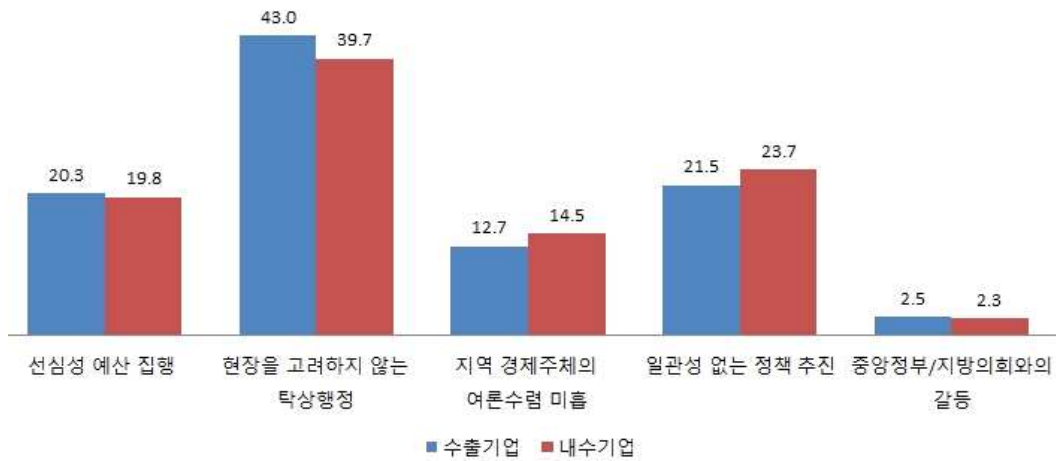
### < 기업규모별 분석결과 >

(단위 : %)



## 〈 수출비중별 분석결과 〉

(단위 : %)



-끝-